

국가 1 급박물관—길림시박물관에 가본다



박물관의 날 행사 현장

지난 5월 18일은 제 48 번째 국제 박물관의 날이다.

‘5.18 국제 박물관의 날’에 맞춰 길림시박물관 (길림시윤석박물관)은 일전 새로 국가 1 급 박물관으로 진급하게 된 영광의 제막식을 진행하였다.

길림성에는 길림성박물관, 길림성 위만황궁박물관, 길림성자연박물관 등 세계의 기존 국가 1 급 박물관이 있으며 이번에 길림시박물관과 함께 사평전역기념관도 새로 국가 1 급 박물관으로 진급했다.

길림시박물관과 사평전역기념관의 추가 승격으로 길림성에는 현재 5 개의 국가 1 급 박물관이 있다.

길림시박물관은 중국의 첫 윤석 전시를 위주로 하는 박물관으로서 이곳에는 현재 세계적으로 알려진 가장 큰 단체 석운석인 길림 1 호 윤석이 소장되어있는데 해마다 세계 각지에서 윤석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길림 1 호 윤석외에도 이곳에는 또 세계 10 여개 나라에서 보내온 각종 윤석 표본이 있다.

주전시실에는 각종 윤석 실물, 관련 사진 등 전통적인 전시방식 뿐만 아니라 첨단과학기술수단을 리용한 윤석 시연 시스템도 있다.

시청각 효과를 통해 관람객들로 하여금 우주에서 온 손님에 관한 지식을 리해하게 하고 윤석이 떨어지는 충격을 느끼게 하여 직접 그 현장에 와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이외 길림시박물관에는 또 길림 무형문화재 전시, 길림시 력사 진렬, 길림성 3 걸전시관, 우자후경극 예술전시관, 송화호나무뿌리조각예술관, 류연중예술품, 김예암예술관 등 길림지역의 문화를 주제로 한 각종 전시관이 있다.

길림시박물관 윤석관은 인터넷에서 예약제로 무료 관람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제 48 번째 국제 박물관의 날을 맞아 더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도록

하기 위해 5월 18일과 19일에는 예약없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 박물관의 날 맞이 행사에 길림시박물관은 길림 윤석, 길림지역 문화 등을 주제로 길림시 일부 중소 학생들을 조직하여 길림시박물관을 참관시켰는데 현장에서 무형문화재인 전지 (剪纸) 작품을 만드는 활동도 조직했다.

또 대표적인 길림시 무형문화재 전승인들을 초청하여 즉석 기예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무형문화재 전통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 중화 전통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느끼도록 했다.

행사 당일 또 길림시박물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길림시 시민들이 소장한 길림의 오래된 물건, 서화 등을 감정해주었다.

“아주 활기차고 아주 풍부하고 아주 만족스럽다.” 이번에 길림시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이렇게 말했다. 길림시박물관측에 따르면 이번 국제 박물관의 날 맞이 시리즈 활동과 전시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된다.

/ 차영국기자



우자후경극예술전시관

5 월이면 웃놀이 시합에 문화생활 즐거워



5월 21일, 유난히 화창한 날씨를 맞아 길림시조선족로년협회 웃놀이 행사가 길림시 송화강변 우라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오전 8시, 이번 행사의 조직을 책임진 길림시조선족로년협회 황정에 부회장의 지휘하에 웃놀이 선수들과 회원 일동이 협회 회가를 힘차게 불러 사기를 돋우었다.

행사장에는 8개 웃놀이장을 설치하였는데 길림시조선족로년협회 16개 분회 32개 팀의 160명 선수들이 시합에 참가했다. 한치 양보 없는 치열한 각축전을 치른 결과 길림시조선족로

년협회 선영구분회에서 1등과 2등을 석권했다.

웃놀이 시합의 총재판장인 협회의 황성기 부회장에 따르면 길림시조선족로년협회에서는 협회 취미활동의 하나로 근년에 매년 5월마다 정기적으로 웃놀이 시합을 개최해 협회의 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고 있다. 또한 웃놀이 시합을 통해 우수한 팀을 선발해 곧 다가오는 6월 길림시조선족민속단오제의 웃놀이 시합에 참가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 문창호특약기자, 차영국기자

길림화학섬유 연간 5 만톤 신형 인조견사 프로젝트 가동

5월 17일, 길림화학섬유주식유한회사 (이하 ‘길림화학섬유’) 연간 5만톤 생산량 바이오매스 (生物質) 신형 인조견사 프로젝트가 정식 가동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35억원을 투자하여 36만평방미터의 부지에 원액플랜트 1개, 방적플랜트 3개, 산성플랜트 3개, 화학수플랜트 3개를 2단계로 나누어 건설할 계획이며 2026년에 모두 완공되어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회사의 인조견사 생산능력은 14만톤을 돌파하여 길림화학섬유 생산액 400억원의 목표를 돌파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다지게 된다.

길림화학섬유의 인조견사 발전은 이미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방직업중중 최고 품질의 인조견사 공급업체이다.

제품의 50% 이상은 일본, 한국, 이탈리아, 에스빠냐 등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H&M, ZARA, HUGO

BOSS 등 국제 대형 브랜드의 우선 선택 원료이다.

특히 국내에서 ‘신국조 (新國潮)’가 유행하면서 ‘마면치마’를 비롯한 자카드 (提花) 국풍 의류는 길림화학섬

유 인조견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 제작하고 있어 제품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근년에 길림화학섬유는 인조견사 대형화, 연속화, 균질화, 세분화 ‘4화’ 승격과 ‘전통방직 (傳統紡)’ , 연속방직 (連續紡)’이중로선의 생산을 통해 친환경 원료,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과정, 친환경 제품 4G 친환경 마케팅 시스템을 형성, 원재료의 인조견사 생산공정의 토대 위에서 자체 개발을 통해 친환경 분해성 바이오 기반 원료를 사용하고 점차적으로 친환경 전기를 사용하여 청정생산을 진행하고 생산과정에서 오염 배출 제로를 실현하여 ‘첨단화, 스마트화, 친환경화’ 발전 리념으로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다.

/ 길림일보



길림시에 도시 새 랜드마크 들어선다

최근, 길림시 풍만구 중해환우천 하 상업종합체가 시공에 들어갔다. 공사는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중해부동산 길림회사에서 1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는 풍만구 의산동로와 전시거리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있으며 부지면적이 약 2만 5,000평방미터이고 건축 총면적이 9만평방미터로 지상 5층과 지하 2층으로 이루어진다.

2027년 완공된 후 상업종합체에는 슈퍼마켓, 영화관, 소매, 음식, 오락, 아동락원, 생활가정 등을 망

라한 상가가 형성된다.

년초부터 풍만구는 고품질 발전 심화의 해, 프로젝트 건설 심화의 해, 업무 실행 심화의 해를 주축으로 중해환우천하 상업종합체 조기 착공 건설에 적극 협조하여 착공 기간을 원래 계획보다 최소 3개월 앞당겼다.

중해부동산 길림회사는 착공부터 총결전에 들어간다는 분투 자세로 이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고품질 공정, 표지성 공정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강성일보

‘반석 소해서체’ 문화산업 브랜드로 부상



5월 18일, 부신립 서예전각 작품전이 반석시박물관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활동은 반석시당위 선전부와 반석시문화라지오텔레비존방송관광국, 반석시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길림시서예가협회 부주석 부신립의 82점의 정품 력작이 전시되었는데 6월 30일까지 전시가 지속된다.

길림시서예가협회 주석 성국홍은 축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년간 부신립은 ‘반석 소해서 (小楷)’ 현상의 선도자로서 반석 서예예술의 발전을 이끌었고 도시가 아름다운 문화 명함을 만들도록 도왔다.”

반석시 문학예술계연합회 주석 겸 서예가협회 주석인 고중지는 ‘반석 소해서현상’은 수년전 성국홍선생의 도움을 받아 뽑아낸 것이라고 소개했다.

반석시서예가협회 전임 주석 부신립의 영향과 선도하에 협회의 4명 회원이 소해서체로 중국서예가협회

에 가입했고 30여명이 길림성서예가협회에 가입했으며 20여명 회원이 소해서체로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상을 받았다.

현재 반석에는 소해서체 창작자가 100여명 있다.

‘반석 소해서체’는 제 4회 은주국제패션문화창의산업박람회에 서예업계 대표로 유일하게 초청받기도 했다.

반석시문학예술계연합회는 또 반석 출신의 서예가들인 등연광, 최보국, 채화립, 창홍재 등을 조직해 반석 서예애호가들을 도와 ‘반석 소해서체’의 전반적인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다.

오늘날, 반석시에는 소해서체를 배우고 소해서체를 쓰는 풍조가 이미 널리 퍼져있다.

다년간의 축적을 통해 ‘반석 소해서현상’은 반석의 중요한 문화 브랜드가 되어 반석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했다.

현재, ‘반석 소해서현상’은 매년 100만원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 강성일보

국내 최초! 철강업계 무인화 스마트 발전공장

현재, 반석시 명성진에 있는 반석 건통철강유한회사 (이하 ‘반석건통’)의 ‘스마트화’ 가스발전공장에서선 설비가 하나하나씩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큰 공장의 생산 구역에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

이곳은 국내 철강업체 최초의 무인화 스마트 발전공장이다.

반석건통 관련 책임자는 4월 15일까지 발전소는 1년여의 건설과 시험 조정을 거쳐 이미 효를 운영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가 가스발전 현장의 무인화와 운영 관리통제 일체화를 실현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현장의 무인화, 스마트화 조작’의 상황에서 안전하고 고효율적인 운영을 실현하여 기업의 후속 전환 및 업그레이드의 심도 있는 융합 발전을 위해 튼튼한 토대를 다지게 되었다.

반석건통제조센터 1층에서는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거나 몇사람이 대형 데이터 스크린 앞에 서서 생산단계의 각종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반석건통 제조관리부 지도실 풍연주임은 “스마트화 무인공장은 작업 효율 향상, 안전 위험 감소, 경영 원가 절감의 삼위일체를 실현했다.”며 감탄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공

장지역의 잉여용광로, 전로가스 및 증기 자원을 리용하여 발전을 진행하는데 연간 발전량이 3.2억키로와 트시 이상에 달한다. 거의 제로 가스 방출을 실현하고 자체 전기 비율은 70% 이상에 달하며 매년 표준석탄 9만 3,578톤을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24만 3,300톤, 이산화황 배출량 795.41톤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동시에 질소산화물 692.48톤을 감소시키고 년간 분진 배출량을 1,403.67톤 감소시켜 매년 기업에 6,000여만원의 수익을 증가시킨다.

“5G + 공업인터넷”의 에너지 부여하에 갈수록 많은 중국 철강기업이 주동적으로 문제를 풀어 친환경 발전의 탄탄대로에 들어섰다.

“도약이자 시작입니다.”라고 말하는 반석건통 공정설비처 응용개발실 신홍보 주임은 “현재 기업의 데이터제어센터, 빅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점차 구축되고 완벽해지고 있다. 올해 또 투입을 늘어 경영형 기업, 혁신형 기업, 스마트 기업, 아름다운 기업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힘을 내어 규범화, 친환경화, 저탄소 절감기업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성일보